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20:24



난민 아동들의
꿈을 담은
'태권 정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그간도 안녕하시고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봄! 우리를 설레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 곳 광야에도 어김없이 봄이 오는가 봅니다. 그렇게 맹위를 떨치던 추위도 다소 물러가고 낮엔 제법 따뜻해지고 담자락 밑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로즈마리나무에도 보라색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따뜻한 봄기운이 물씬 풍기기를 바랍니다.

요르단 소식

요르단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요르단 총 수출은 65억9,300만 달러로 2017년 대비 3.6% 증가하였고, 수입은 202억 7,400만 달러로 1.4% 감소하였으며, 2018년 1-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2%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고, 물가는 글로벌 유가 상승 및 국내 여파, 면세 제품 대상 판매세 인상 등의 요인으로 2018년 1-3분기 중 4.5% 상승(전년 동기, 3.3%)하였으며, 고용지표로, 2018년 1-3분기 실업률은 18.6%이며 남성 및 여성 실업률은 각각 16.3%, 27.1%이고 연령별로는 15-19세는 46.9%, 20-24세는 37.7%라고 합니다. 재정수지는 2018년 1-10월 12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2,800만 달러(GDP 대비 3.5% 수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자타리 난민 캠프 소식

현재 난민 수는 약 78,597명, 18,260 가정이 캠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 67명이 시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가하면 매달 약 300여 명의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꿈도 없이 캠프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자라갑니다. 우리 한국 아카데미가 이들 모두에게 꿈을 심어주고 생명을 전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한국 아카데미는 지금은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개학 전부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와이 코나에서 DTS 훈련을 마친 21명의 학생들이 아웃리치로 이 곳을 찾았습니다. 2주가 넘는 긴 시간을 난민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준비해 온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 뛰어 놀며 그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서 17분의 의사와 간호사, 4명의 의대생들로 구성된 봉사자들, 그야말로 움직이는 병원이 우리 한국 아카데미를 통해 자타리 캠프에 와서 한 주간 동안 1천여 명이 넘는 불쌍한 난민들의 영육을 돌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월 말에 태권도 승급심사에 약 50여 명이 승급하였습니다. 또한 태권도학과를 졸업하고 태권도 4단인 저의 질녀가 와서 태권도 리더들을 훈련 시켜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 영적 해방을 선포하며 수도 암만에 있는 로마원형경기장(순교의 피가 흘렀던 곳)에서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소식

저는 겨우내 감기로 조금 고생했지만 지금은 회복되었고 아내 싸미야는 지금도 계속 기침하면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다솔)은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으며, 5월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딸(다해)은 대학교 3학년으로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관련해서 장기사역자 숙소 겸 센터는 공사에 차질이 생겨서 3월 말에 입주를 목표로 열심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부족한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섬기시는 하나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길 기도합니다.

쌀람 알레이쿰!!

요르단 자타리 난민 캠프에서 싸미 싸미야 선생 올림...



ㄱㄷ 제목:

1. 저희 부부의 섬김을 통해 난민들의 영혼이 살고 세워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2. 저희 부부와 팀원들의 안전과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아랍어로 소통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3. 학교에 필요한 교사들과 태권도 사범을 보내 주시기를 위해. 건축 중인 학교 체육관이 빨리 완공되도록.
4. 장기 사역자 숙소와 시그센터의 완공과 건축 중인 기수가 아름답게 완공되도록.
5. 8월 15일 원형경기장에서의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도록
6. 미국에 있는 아이들(다슬, 다해)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YWAM팀 공연



YWAM팀과 함께



원주 세브란스 병원 봉사자들



승급 심사



리더 훈련 모습



시그센터 내부 공사 모습